

종목만 갈아탄 ‘빚투’ 여전... 신용융자잔고 20兆 유지돼

〈빚내서 투자〉

2차전지주서 로봇·정치주 종목 변경
개인 투자자들 테마주 빚투 반복
“대규모 투자 손실 이어질 수도”



/유투이미지

금융당국의 ‘빚투(빚내서 투자)’ 경 고로 잠시 주춤했던 신용거래융자 잔 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2차전지주 에서 로봇·정치주로 종목만 갈아탔을 뿐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주 빚투는 반 복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신용융자잔액은 20조4445억원으로 지 난달 17일(20조5572억원)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빚 투 경고와 함께 증권사들이 과열 종목 들에 대한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달 24일 20조197 억까지 내려갔었지만 곧바로 원상복귀 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건 2차전지 테마주이다. 이후 초전도 체 테마주 등이 반짝 빛을 본 뒤 현재 는 로봇·정치 테마주가 주목받고 있 다. 시장에서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의 테마주 투자 과열을 우려하고 있지 만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할 때마다 종 목만 변경된 채 빚투 열기는 유지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 19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연간 기본 수익이 높아졌 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 방식보다 는 단기적·투기적 거래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테마주 빚투 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테 마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개미들의 빚투 시도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달에만 주가가 24.7% 오른 로봇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신용융자잔고 는 지난달 1일 493만682주에서 지난달 말 641만866주로 올랐다. 다만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12일에는 7.86% 급락하며 다시 400만주대로 내려 왔다. 또 다른 로봇주인 뉴로메카는 지 난달 1일 38만7327주에서 12일 52만 9956주로 증가했다. 로봇 관련주인 에스피지 역시 128만3968주에서 164만 3525주로 올랐다.

두산로보틱스도 올해 기업공개(IP O) 최대어이자, 미래 로봇 대장주로 주 목되는 만큼 두산의 주가도 쑥쑥거리 고 있다.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1일에는 무려 27.6%가 올랐다.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신용 융자 잔고도 동일 기간 22만2964주에 서 29만9389주까지 늘었다.

유승준 유화증권 연구원은 “협동로 봇은 현재 로봇시장 내 침투율이 4% 수 준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28%로 빠르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용 로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라고 설명했다. 협동로봇의 경우 사람 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는 만큼 삼성, 한화, 두산 등 대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로봇을 국가첨단산업 육성분야 에 포함하는 호재도 힘을 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반등도 심상치 않다. 흔히 ‘한동훈 테 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노을은 이달에만 127.2% 급등했다. 신용융자 잔고도 이달 1일 7만9679주에서 11일 11만1327주까지 39.7% 늘었다. 다만 11일 주가가 26% 급락하면서 12일에는 4만3310주가 상환됐다. 이외 태양 금속(146.3%), 오피스넷(37.5%), 부 방(48.2%) 등도 지난달부터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했다.

황 연구원은 “테마주의 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주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급락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반대매매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 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화건설부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부문 “동반성장, 함께 멀리 가자”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 구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승 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43 개 우수 협력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술 혁신과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 반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우수협력사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 자리에서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했던 43개 협력사 들을 선정해 2023년도 우수협력사 시

상식을 진행했다. 토목, 건축, 기전, 구 매, 안전환경 분야 총 6개 최우수협력 사 및 37개 우수협력사에게 직접 시상 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 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는 “협력 사와의 동반성장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면서 “함께 노력 해 온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며 동반 성 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서광강건 흥경식 대표는 “근래 강조되고있는 ES G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과 상생펀드 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협력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며 “최근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 려운 시기지만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 탕으로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증권주, 3분기 실적개선 기대에 ‘상승세’

테마주 열풍으로 거래대금 늘어나
KRX증권지수, 한 달간 3.01% ↑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27조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 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가 상 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테마주 열풍으 로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사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주가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 개 국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간 3.01% 상승했

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41% 감 소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 다. 삼성증권(6.09%), 키움증권 (5.86%), 한국금융지주(4.83%), 미래 에셋증권(1.47%) 등이 크게 올랐다.

이차전지부터 시작한 테마주 열풍 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사 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조174억원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대금은 7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 난해보다는 증가한 상태다. 지난달 국 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22조9480 억원으로 전년 동월(14조2636억원) 대 비 크게 늘었다. 이달에도 20조857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13조8920 억원) 대비 7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 의 전망치도 높아졌다. 키움증권의 3 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2072억원으로 한 달 전(1837억원)에 비해 약 12.8% 늘었다. /원관희 기자 wkh@

GS건설 ‘ISO 27001’ 인증 등 2건 동시 획득

“정보보호 강화 위한 노력할 것”

GS건설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 템 ‘ISO 27001’인증과 개인정보보호 ‘ISO 277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GS건설 홈페이지, 자 이(Xi) 홈페이지, 자이 앱, 자이 스마 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GS SPACE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ISO 27701 인증은 각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분야에 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 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가 인증하는 제도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보 호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기업 으로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청약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대도시 ‘강세’

경기도 외곽지역 성적 저조

지난 8월 아파트 청약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 브랜드와 서울에서 떨어진 경 기도 외곽지역 분양 성적은 저조한 결 과를 보여, ‘아파트 청약양극화’ 현상 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은 ‘2023년 8월 청약결과’ 자료를 통해 8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대전 68.7대 1, 서울 53.9대 1, 전남 5.6대 1, 광주 3.9대 1, 전 북 2.7대 1, 경기 0.8대 1, 제주 0.2대 1, 경남 0.1대 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3대 1 로 7월 14.8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서울 의 경쟁률은 전월 대비 낮아졌지만 대 전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특 히 청약미달률은 1순위 기준 7월 17.3%에서 8월 26.6%로 상승하면서 청약 흥행단지과 실패단지의 양극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현상이 뚜렷했다.

8월 1순위 청약미달률은 서울, 대 전, 전남이 0%, 광주 10.2%, 전북 13.3%, 경기 76.9%, 순으로 조사됐다.

/채윤정 기자

금감원, 감사업무 선진화·청렴도 제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 맞춘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대학교병원 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청렴업 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발 전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 도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향 후 내부통제 강화전략 공유, 반부패·

청렴 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감사기 법 공유 및 관련 실무회의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기영 감사는 “이번 협약식 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및 반부패· 청렴 업무 품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한 다”며 “금감원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